일회성인 인연은 거의 없다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⑬ 부루나의 수기

그때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들은 여기 부루나 미다라니자를 보느냐? 내 항상 그를 설법자 중 으뜸이라 칭찬했으며, 또 항상 그의 여러 가지 공덕을 찬탄했노라. 부지런히 정진하여 나의 법을 도와 지키며 설하여 능히 사부대중 가운데서 법을 가르쳐 격려하고 기쁘게 하느니라. 부처의 바른 법을 제대로 해석하여 함께 범행을 닦는 이들에게 큰 이익을 끼치나니, 여래 제외하고는 그의 언변을 따를 자가 없느니라.

너희들은 부루나가 나의 법만을 지켜 도와 설한다 여기지 말라. 또한 과거 90억 부처님 처소에서도 부처님들의 바른 법을 지켜 도와 설했다. 언제나 법을 설하는 자 중 으뜸이었으며, 또 제불이 설하신 공의 도리도 잘 통달했으며, 네 가지 걸림 없는 지혜를 얻었느니라. 항상 잘 생각하고 이를 밝혀 훌륭하게 법을 설하여 의혹이 없었으며, 보살의 신통력을 갖추어서 그의 목숨이 다하도록 언제나 범행을 닦았느니라. 그 부처님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참다운 성문이라' 하였느니라.

부루나가 이러한 방편으로 한량없는 백천 중생들을 이롭게 하였으며, 또 한량없는 아승지 수의 사람들을 교화하여서 아뉴다라삼먁삼보리를 이루게 하였으니,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항상 불사(佛事)를 하여 중생을 교화하였느니라.비구들이여, 부루나는 또한 과거의 칠불(七佛) 때에도 법을 설하는 사람 중에 으뜸이었고, 지금 나의 회상에서도 설법자 중에 으뜸이며, 현겁 중에서나 미래의 여러 부처님 때에도 설법자 중 으뜸이 될 것이니라. 그때마다 부처님의 법을 잘 지키고 도와 설할 것이며, 오는 세상에도 한량없고 그지없는 부처의 법을 지키고 도와 설해,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고 이익 되게 하여 아뉴다라삼먁삼보리 이루게 할 것이다. 언제나 부처님 국토를 청정히 하기 위하여 정진하고 중생들을 교화하리라."

〈법화경〉에는 수기(授記)를 받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사리불을 위시해서 10대 제자, 5백 아라한, 또 2천 아라한, 심지어 제바달다까지 수기를 받는다. 위의 본문은 부루나에게 수기를 줄 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다. 〈법화경〉 설법 특징 중 하나는 이 세상에는 일회적인 인연이 없고 과거, 현재, 미래 삼세에 걸쳐 이어지는 연속되는 인연이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성불이 '구원성불(久遠成佛)'이듯이 지금의 현재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연의 영원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출세간의 인연이다. 현상 속에 나타나는 어떤 상황 전개가 시간적으로 무수히 반복되는 것이고 공간적으로는 동시다발적이라는 것이 대승의 최고 경전인 〈법화경〉과 〈화엄경〉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이다. 시간이 무시무종(無始無終)이고 공간이 무한무변(無限無邊)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단일적인 상황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세계도 삼세제불(三世諸佛), 시방제불(十方諸佛)설이 나온 것이다. 중생이 생사를 거듭한다는 윤회설이나 십이인연설 같은 근본교리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모두 인연의 연속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연속이 실체가 없어 모두 공(空)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중관론〉에서 말하기를 "인연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을 나는 '공(空)'이라고 말한다. 거짓된 이름이라고도 하며, 중도의 이치라고도 한다.(因緣所生法 我說卽是空 亦為是假名 亦是中道義)"고 하였다.그러나 비록 공한 것이기는 하지만 현상계의 모든 존재가 과거의 존재이기도 하고 미래의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는 존재의 의미를 한정 없이 확대해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말하는 것이다. 불교의 종교적 의미는 인생의 의미를 무한히 확대해서 해석하는 데 있다. 인생은 결코 단일적인 존재이거나 일회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단생론(單生論)이나 재생론(再生論)이 아닌 다생론(多生論)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이고 동시에 미래의 나이다. 비록 생멸하는 가아(假我)로서 존재하지만 그 본질은 불생불멸하는 진아(眞我)의 나라고 하는 열반의 덕에서 말하는 나인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교단분열, 다른 계율 견해서 비롯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⑬ 부파불교와 율장

대승불교가 이전의 불교와 여러 측면에서 다른 것은 분명하지만, 이전의 불교를 전적으로 부정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승불교라는 표현보다 부파불교(部派佛敎)라는 명칭이 더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불멸(佛滅) 100년 후 무렵에 불교교단은 상좌부(上座部)와 대중부(大衆部)로 분열되었다. 이 분열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지만, 대체로 계율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 십사(十事), 즉 일상생활에 관한 열 가지 사항이 계율을 위반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논란을 꼽는다. 상좌부에서는 열 가지 사항이 계율을 위반한 것이라는 공식적인 판단을 수용했지만, 대중부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계율을 둘러싼 논란은 점점 더 많아졌고, 그 결과 지말분열로 이어지게 되었다.

여러 차례의 분열로 많은 부파가 생겨났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 부파는 독자적인 교리와 율장을 만들었다. 공동생활을 하는 구성원들 간의 불화가 일상생활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들 간의 화합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규칙이 공유되어야만 했을 것이다. 부파들의 명칭과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으며, 율(律)의 전승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 스리랑카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의 상좌부불교(上座部佛敎)에는 팔리율이 전승되고 있다. 반면에 동북아시아에는 법장부(法藏部), 유부(有部), 화지부(化地部), 대중부(大衆部) 등의 율이 전해진다. 중국으로 전래된 율장(律藏)은 5세기 무렵에 본격적으로 한역(漢譯)되었다. 5세기 초에 불야다라(弗若多羅)와 구마라집(鳩摩羅什)에 의해 살바다부(薩婆多部), 즉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의 〈십송율(十誦律)〉 61권이 한역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불타야사(佛陀耶舍)와 축불념(竺佛念)에 의해 담무덕부(曇無德部), 즉 법장부의 〈사분율(四分律)〉 60권이 한역되었다. 또 중국 승려인 법현(法顯)은 기존의 율장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 직접 인도에 가서 율의 범본(梵本)을 구해오기도 했다. 법현은 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와 함께 마하승기부(摩訶僧祇部), 즉 대중부의 〈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 40권을 한역했다. 또 법현이 사자국(師子國)에서 구해왔다고 전해지는 미사색부(彌沙塞部), 즉 화지부의 〈오분율(五分律)〉 30권은 불타집(佛陀什)과 축도생(竺道生)에 의해 한역되었다. 네 종류의 율장 가운데 〈사분율〉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했으며, 이를 토대로 율종(律宗)이 성립되었다. 이로 인해 동북아시아에서는 사분율종(四分律宗)이라는 표현이 통용되었다.

8세기에는 인도에서 25년 동안 유학했던 의정(義淨)에 의해 근본설일체유부의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 50권이 한역되었다. 이것은 의정이 중인도 남해(南海)에 유학할 때 대승교도(大乘敎徒)가 집지(執持)한 율로 전해진다. 이 문헌은 살바다부의 〈십송율〉 계통이 증강된 신율(新律)이며, 이전에 한역된 〈십송율〉은 설일체유부의 구율(舊律)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4세기에 축불념(竺佛念)에 의해 한역된 〈비나야(毘奈耶)〉 10권은 〈십송율〉 계통의 고율(古律)로 추정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현존하는 율장은 부파교단의 율이며, 그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금계(禁戒), 즉 비구와 비구니가 지켜야 할 계에 대한 해설이다. 두 번째는 비구와 비구니가 행하여야 할 행지(行持), 즉 승가 행사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세칙이다. 이로 인해 율장은 출가자를 대상으로 한 문헌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으며, 후대에 부파불교는 출가자 중심의 불교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⑬ 불음주계의 발단

과음하고 실수로 부처님 걷어차

〈마하승기율〉과 〈사분율〉 등에는 석가모니 당시 승단에서 음주가 금지된 사연이 소개되어 있다. 어떤 스님이 음식 공양을 받는 자리에서 우연히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꽤나 술을 많이 먹었는지 나중에 그 스님이 숙취를 견디지 못하고 실수로 석가모니를 발로 걷어찬 것이다. 이것이 승단에서 금주를 결정한 계기였다고 적고 있다. 이 일화가 보여주듯이, 한때 불교는 술에 대해서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을는지 모른다. 불음주(不飮酒)의 규정이 생겨난 것은 술을 먹었던 어떤 제자의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지 처음부터 당시 사회에서 유용하고 있었던 음주문화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했던 것은 아니다. 율장이 다소 후대에 각색된 것이라면, 술에 대한 관용을 보여주는 다른 단서도 있다.

술에 대한 관용은 고고학적인 단서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파키스탄의 고대 사원지 탁트이 바히(Takht-i-Bāhī) 인근에서 술잔이 발견된 적이 있다. 발우 크기의 이 술잔에는 명문(銘文)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것이 술을 마시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인도 북서부에서 포도를 길렀기 때문에 이 술잔은 아마도 포도주를 위한 술잔일 것이다. 그렇다면 대략 기원 전후까지도 우리는 술문화에 대한 고고학적 단서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물론 이때의 술은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알코올 성분이 있는 포도주가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술을 빚을 때 사용하는 포도 거르는 체가 승려 사이에 오갔던 단서가 있기 때문이다. 술 빚는 일이 승단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일어났다는 단서가 된다. 또 다른 율장에는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포도를 살짝 익혀 발효주를 만들어 음용하도록 권하는 장면도 등장한다.

아마도 고대 인도 사회 전체에서 처음부터 술이 현재처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것은 아닐 것이다. 출가인들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일상적으로 술을 빚고 마셨다는 증거는 꽤 많다. 불교 이전의 상황을 상기해보자. 소마(Soma)는 아마도 가장 일찍 인도 역사에 등장하는 '취기'나 심지어 '환각'을 주는 어떤 음료였을 것이다. 소마주는 대체로 베다 의례를 지낼 때 사용되었던 것으로 신들에게 바치고 사제들이 마시던 술의 일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유와 섞어서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소마가 광대버섯의 일종이라는 사람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사를 지내면서 과도하게 소마를 마시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는 별도의 방법이 있었다. 즉 술을 과도하게 음복했을 때 마시는 별도의 술이 있었는데, 마치 술 먹은 다음 날 해장술로 속을 푸는 현재의 습관과 닮은 듯 보인다.

의례적인 상황에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고대 인도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술을 먹었다는 증거는 분명하다. 수라(surā)라고 부르는 술이 그것이다. 이것은 그 재료나 숙성의 상태로 보건대 와인이 아니라 맥주에 가까운 술이었을 것이다. 곡물을 숙성시켜서 만들기 때문이다. 이 술이 의례에 사용된 경우는, 하나의 경우만 제외하면 매우 드물기 때문에 거의 일상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대 인도의 브라흐마나 문헌에 이 술의 제조법을 짐작할만한 내용이 산발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보리싹을 틔운 것을 말려 갈아 놓고, 그것을 지어놓은 밥과 함께 섞는다. 이것을 누룩과 함께 다시 섞어서 항아리에 물을 붓고 넣는다. 이것을 땅에 묻고 발효시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유를 함께 부어 3일간 땅 속에서 발효시킨다.

고대 인도의 문헌 속에서, 우리는 과일주나 곡물 발효주 등의 흔적을 보게 되는데 증류주의 흔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보통은 아랍인들이 향수를 만들기 위해 증류법을 발달시켰고, 12세기 이후에야 유럽에서 증류주가 가능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발견은 이미 현재의 파키스탄 지역에서 기원전 2세기경부터 증류주가 가능했다고 말한다. 페샤와르 동북쪽, 샤이칸 데리(Shaikan Dheri)에서 증류기가 발견된 것인데, 이는 아랍이나 유럽을 훨씬 앞선 것이다. 앞서 말한 간다라 지방의 술 문화의 흔적을 또 한 번 증명하는 셈이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dongguk UNIVERSITY 東國大 미래와 힐링 융복합 最高경영자 과정 제4기 모집

시대를 관통하는... 동국대 '미래 예측, 힐링건강' CEO과정에 초대합니다.

〈미래학 + 동양미래예측학 + 자연건강(Healing) + 인문 · 문화〉

대한민국 리더의 미래와 건강, 사업에 실질적 도움 되는 차별화된 특화 AMP 과정

OT 공개 특강 * 참관을 희망하시는 분 사전신청



원장 소재학 총괄교수

미래예측학박사1호
동양미래학자
명리학자
풍수지리학자

교과과정 및 커리큘럼

교과과정	* 매주 화(火) 18:00 ~ 21:00 * 동국대 학명세미나실 * 입학식 : 5월 11일			
	1교시 18:30 ~ 20:10 동서양 미래학, 자연 건강, 인문 문화 특강 2교시 20:20 ~ 21:00 자연건강, 힐링타임, 1주일의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			
	대기업 및 공기업 임원급 이상 경영자, 중소기업 대표, 금융계 언론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 고위인사,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자			
	미래학	동양미래예측학	자연건강	인문·문화
커리큘럼	미래경영과 4차 산업 혁명	때를 찾는 지혜 동양미래예측학	Wellbeing Welldying	인문학
	미래변화와 생존, 혁신전략	과학화된 역학(관상 주역)	음식궁합 먹거리	법률
	미래전략 손에 잡히는 미래	부동산과 풍수지리	체질요법 힐링 명상	세무

	주 제	강 사	일 정
OT 특강	늙지 않는 비법 호르몬 관리	김세철 원장	4월 20일
	한국인만 모르는 한국의 현재와 미래	이만열 교수	4월 26일
	동양미래예측학으로 보는 현재와 미래설계	소재학 원장	5월 4일

* 초빙교수 : 이상희 전 과기부장관, 김홍신 소설가, 이계호 태초 먹거리학교, 박승주 전 여가부차관, 이만열(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전 미국 대통령후보, 김세철 명지병원 의료원장,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 김중태 IT문화원장, 최낙원 대한통합암학회 이사장, 한주석 의성한방병원장, 박관식 한경TV 땅땅땅 외 * 원우 홍보대사 장미화 가수

동국대 미래융합대학 CEO 최고경영자과정 사무국 ☎ 02-585-0079, 010-8335-8001

현대인을 위한, 명리·풍수 무료 공개특강!

東國大 GFCA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12기〉 개강특강

현대 사주명리학 공개강좌

3월 31일(水), 4월 7일, 수업 : 매주 水 18:30~21:00 초급, 중급, 고급 과정별 수강 . 사전신청

왕초보도 제대로 된 사주명리학, 원리위주 가장 쉽게 공부하고 마스터하는 과정

평생 공부해도 답 안 나오는 사주학, 원리 위주 재미있게 OK!
성공 실패 시기, 창업 투자 시기, 때를 찾는 법 제대로 배우는 과정, 검증 가능한 제대로 된 작명법(성명학) 마스터 과학화된 역학, 논리로푸는 사주학, 동양미래예측학 마스터 교강사 및 명리진로적성상담자 자격증 과정 겸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및 프로그램 활용 학습용이
*예습 및 복습강의 영상제공 *수료후 마스터까지 무료 반복수강 가능

東國大 GFCA 풍수지리 최고위과정 〈9기〉 개강특강

명당찾는 풍수지리 공개강좌

4월 12일, 4월 19일, 수업 : 매주 月 18:30~21:00, 경제적인 등록금, 사전신청

기(氣) 좋은 터 찾는 법, 원리 위주 강의, 왕초보도 1년에 제대로 된 맥을 잡는 과정

풍수지리, 정확히 알고 활용하면 인생을 보다 성공적이며 건강하게 해주는 자연과학, 교강사 및 풍수지리 지도사자격증 과정 겸비, 이론 따로 실제 따로 아닌, 원리 위주 재미있는 공부, 국내외 실전 기 풍수지리 현장 답사 *강의 영상 제공





★소재학 총괄교수 동양미래예측학, 풍수지리 특별상담 진행★

동국대미래융합교육원 사주명리 풍수지리 최고위 사무국 02-3443-4984